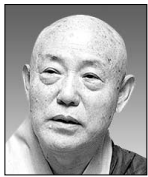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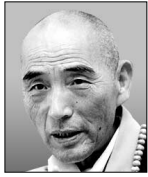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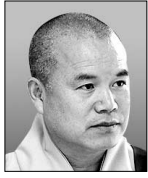
일주문



용성 스님 오도 119주년 기념법회 장수 축립장사 조실 도문 스님은 10월 2일 용성 스님 오도 119년 기념 법회와 광명관등 만등불사를 봉행한다.(063)353-0108



각원사 울산포교원 개원 천안 각원사 주지 법인 스님은 9월 4일 울산시 북구 호계동 각원사 울산포교원(주지 덕륜) 개원법회를 봉행했다.(052)293-5550



금오 스님 37주기 추모법회 보은 법주사 주지 도공 스님은 9월 20일 오전 10시 대웅전에서 금오 스님 제 37주기 추모법회를 봉행한다.(043)543-36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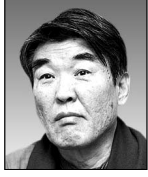
개성 시범관광에 참여 조계종 사회부장 정병 스님은 8월 26일 현장은 현대그룹 회장과 정관계 인사 등 개성 1차 시범관광단과 함께 개성을 방문했다.



한국투명성기구 부회장에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부의장 퇴휴 스님은 8월 24일 열린 한국투명성기구(NGO) 32차 이사회에서 부회장에 선임됐다.



세계 정형·소아과 학술회의 참석 동국대 일산병원 이석현 원장은 9월 2-9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리는 세계 정형외과학회와 국제소아정형외과학회 학술대회에 참석했다.



예술종합학교 석좌교수 재위촉 시인 김지하씨는 8월 31일 한국예술종합학교 석좌교수로 재위촉됐다. 위촉장 수여식은 9월 9일 총장실에서 열린다.

군중특별교구 부주지에 계성 스님

현풍 유가사 주지 계성 스님(사진)이 8월 25일자로 조계종 초대 군중특별교구장 일민 스님을 보좌하는 부주지에 임명됐다.



군승 출신인 계성 스님은 최근까지 조계종 군불교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군불교 활성화에 전력해 온 '군포교 통'이다. 스님은 교구장 일민 스님이 교육원장을 맡을 당시 교육부장으로 활동하며 인연을 쌓아왔다. 강화 전등사 주지로 있으면서 계성 스님은 프랑스로 이강할때 외규장각 도서 반환을 촉구하기 위해 삼랑성 역사문화축제를 2001년부터 시작, 지역 축제의 반열로 올려놓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강유신 기자

“불심도 ‘최고상궁’ 되고자 노력”

봉은사에서 ‘나의 불교신행생활’ 털어 놓은 텔런트 여운계씨

“40년 동안 연기하면서 늘 부처님께 기도했어요. 나의 연기를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으로 읽히게 해달라고, 감동을 주는 연기를 하게 해달라고. 덕분에 제가 텔런트인지는 모르지만 이 자리에 설 만큼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됐네요.”



는 연극극장에서 연기를 배우면서 본격적인 배우생활을 시작했다. 방송국이 설립되자 곧바로 텔런트가 됐다. 신인시절부터 맡았던 노인역이 벌써 40년째다. 요즘에는 아직도 살아있느냐는 우스갯소리까지 듣는다. 그런 여씨는 이날 “강의는 처음”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사실 불교를 너무 몰라서 불교를 믿는다고 말하기가 부끄러워

요. 불교공부 좀 하라고 늘 재근하는 남편은 경허 스님 일화를 들려주며 남이 대신해줄 수 없다고 재근을 해요. 이제 시간이 나면 저도 여러분처럼 정진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절에 자주 가지 못했고 불교공부도 하지 못했지만 부처님을 늘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살았다. 하고 싶었던 연기를 지금까지 하고 있고 아이들도 별 탈 없이 자란 게 아마도 기도 덕인 것 같아도 목소리에 힘을 주었다.

얼마 전 다녀온 금정산 삼암사에서 ‘금자씨’ 이명에 씨가 1박 2일 기도를 하고 갔다는 말을 듣고 불자텔런트로 불리는 자신이 미처 하지 못한 것을 후배에게서 배운 것 같아 마음을 굳게 다졌다.

“80살 넘는 미국의 어느 배우가 연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나까지 연기하는 사람으로 남아야겠다고 다짐했죠. 부처님이 이 기도를 들어줄 때까지 늘 기도하는 연기자가 되겠어요.”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추병직·오영교·이재용 장관 등 참석

조계종 중앙신도회 불자 정부기관장 초청법회



불자 정부기관장 초청법회에 참가한 추병직(첫번째) 건교부 장관, 오영교(세번째) 행정부 장관, 이재용(여덟번째) 환경부 장관, 황우석(일곱번째) 교수 등이 축하점 등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권대행 김의정)는 8월 29일 한국일보사 송현클럽에서 ‘불자 정부기관장 초청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을 비롯해 오영교 행정자치부 장관, 추병직 건설교통부장관, 이재용 환경부 장관, 이홍희 국회 정각회장, 황우석 서울대 석

좌교수 등이 참석했다. 법장 스님은 “불심을 마음 깊숙이 간직하고 공직을 수행한다면 국민들에게 존경받는 공직자가 될 것”이라며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이에 대해 <반야심경> 독경으로 하루를 시작할 만큼 불심이 돈독한 추병직 건교부장관은 “독경을 하지 못하는 날이 있는데, 그런 날

은 하루종일 짝짝한 기분”이라며 “부처님이 말씀하신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깊은 뜻을 음미하면서 직분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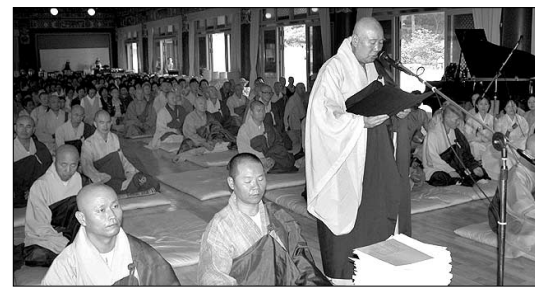
이재용 환경부 장관은 “법정 중정예하게서 마음 자체의 이치를 바로보는 지도자가 되라는 가르침을 주셨다”며 “못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환경부장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콜롬비아에서 전날 밤늦게 귀국한 황우석 교수는 “강행군 일정이었지만 오늘처럼 의미 있는 법회에 초청해준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답했다. 황교수는 법장 스님으로부터 심산(深山)이란 법명을 받기도 했다.

김의정 중앙신도회 회장대행은 “오늘 법회에 초청된 정부기관 장관님들은 부처님 법을 통해 국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유철주 기자

정일 스님 입적 1주기 다례제



남산당 정일 선사 입적 1주기 다례제가 8월 27일 서울 보광사에서 봉행됐다. 이날 법회는 법주사 조실 법행 스님, 선학원 이사장 도형 스님, 법주사 주지 도공 스님 등 800여 명이 동참했다. 도형 스님은 추모사를 통해 “선사의 법음에 보답하기 위해 수행과 포교에 매진하자”고 말했다.

대전불교사암련 회장 운봉 스님 취임



대전불교사암련회장 운봉 스님 취임법회가 8월 29일 대전 그린타워에서 봉행됐다. 운봉 스님은 “지역불교계의 화합을 도모해 모범적인 사암련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날 대전사암련은 수석부회장 도안 스님(대원정사), 상임부회장 대연 스님(송림사) 등으로 임원진을 구성했다.

불교 전문밴드 ‘해조음’ 창단 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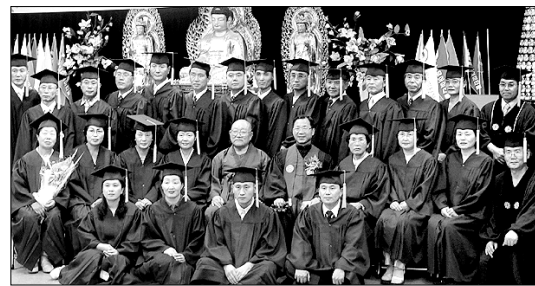
부산 해인정사(주지 수진) 부설 그룹사운드 해조음 창단 공연이 8월 31일 해인정사에서 열렸다. 1200여 사부대중이 동참한 창단 공연에서 수진 스님은 “오늘은 한국불교 최초로 불교음악 전문 밴드를 창단하는 날이며 불교음악 발전에 큰 획을 긋는 역사적인 날”이라고 의미를 전했다.

경주시니어클럽 현장체험학습



경주시니어클럽(관장 진병길)은 8월 29일 시니어클럽 회원 5개 사업단 250여 명을 대상으로 사업단별 활동상황 견학을 위한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했다. 청도 운문사 등지에서 열린 체험학습에서 진병길 관장은 “이번 행사는 사업단별 각종 활동을 공유하고 단합을 다지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동산불교대·대학원 졸업식



동산불교대(이사장 김재일)는 8월 28일 동산불교대관에서 제23회 동산불교대학교 제14회 동산불교대학원 졸업식을 함께 진행했다. 동산불교대는 이날 대학원 졸업생 4명을 포함해 35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김재일 이사장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공부에 정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나무 묘법 연화경
시대에 맞는 생활불교의 지평을 여는 신 종단으로서 종도(스님) 및 법사, 전국 각 지역 중무원을 모집합니다.
년령, 학력, 출가이력, 경력은 필요치 않습니다.
법사 및 행자는 연령과 남녀 관계없이 일정한 교육을 실시하여 수계함
묘법 연화경으로 각종 예불 및 의식을 무보시로 가르쳐 드립니다.
대한불교 묘법 연화종 총무원장 만오 연해광 함장
총무원 : 창원시 중앙동 70-9번지
문의 : 055)263-4984, 018-432-4984

생활철학 강좌 학인 모집 (책임지도)
명리, 성명, 관상, 육효, 풍수지리
강사 : 만오스님(현 창원 전문대학 강의중)
대상 : 스님
모집인원 : 20명
보시 : 50만원
접수 : 9월 30일까지
강의 : 10월 1일부터 - 10월 30일까지 (부족한 스님은 날짜와 관계없이 일때까지)
문의 : 055)263-4984, 018-432-4984
정통 철학의 맥을 이어온 학문, 우주의 근본원리를 탐구하고,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알게되면 부처님의 12인연법은 물론 운명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스님은 신도들의 상담에 필수적인 것이고, 우주의 이치로 실로 정연하여 한치의 착오가 없는 만고 불변의 학문이요, 대도(大道)라 할 수 있다. 즉 철학은 재미로 보는 것이 아니다.

심마니 토종 오가피
심봤다! 제2의 산삼
현종 심마니 토종 오가피는 옛 고전서사에 전해 내려오는 국내산 오가피에 심마니가 채취한 천종산삼의 배양근을 함유하여 우리 체질에 맞게 심혈을 기울여 개발되었습니다. 첨단 생산 시설에서 엄격한 품질 관리로 좋은 제품을 만드는 현종 심마니 토종 오가피에는 건강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부터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 시작하세요!
왜 심마니 토종오가피인가?
- 유효성분이 가장 좋은 100% 국산 토종오가피 (중국산의 6배)
- 심마니가 강원도에서 직접 채취한 천종 산삼 원근으로 배양한 산삼 배양근 추출물
- 홍성, 포천, 영월 등 자사 지역 현종농장에서 직접 재배관리
- ISO 9001 품질인증, 식품위해요소중점 관리 기준 HACCP 인증
책자와 비디오테이프를 심마니 토종오가피와 함께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주)현풍F&B HYUN PUNG F&B CO.LTD 02)455-1114